

클린 연기 최다빈 쇼트 '톱 10'



21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 최다빈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67.77점으로 자신의 최고점 경신하며 8위...내일 21위 김하늘과 프리 출전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간판인 최다빈(수리고)이 아름다운 클린 연기로 쇼트 프로그램 톱 10에 진입했다.

최다빈은 21일 강릉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37.54점, 예술점수(PCS) 30.23점을 합쳐 67.77점을 받았다.

앞서 지난 11일 단채전(팀이벤트) 쇼트 프로그램에서 얻은 개인 최고점 65.73점을 며칠 만에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최다빈은 여자 싱글 30명의 선수 가운데 8위를 차지했다.

23일 프리 스케이팅 결과에 따라 '피겨 여왕' 김연아를 제외한 한국 선수의 올림픽 여자 싱글 최고 성적을 기대해볼 수 있게 됐다.

김연아 전후로 한국 선수 가운데 올림픽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는 밴쿠버 대회에서 16위를 한 곡민정이다.

이번 시즌 부츠 문제로 인한 부상과 모친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최다빈은 최근 무대에서 잇따라 최고점을 경신하며 생애 첫 올림픽에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최다빈은 이날 '파파 캔 유 히어 미'(Papa Can You Hear Me)에 맞춰 차분하고 우아한 연기를 펼쳤다.

첫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실수 없이 깔끔하게 성공한 최다빈은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프린과 플라잉 캐멀 스프린을 몰 흐르듯 부드럽게 연결했다. 이어 트리플 플립과 더블 악셀 점프로 깨끗하게 뛰어 점프 과제 3개에 모두 성공했다.

스텝 시퀀스와 우아한 레이백 스프린으로 연기를 마친 최다빈은 좋은 점수를 예견한

듯 환하게 웃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최다빈은 이날 모든 과제에서 수행점수(GOE) 가산점을 챙겼다.

개인 최고점(61.15점)에는 못 미쳤지만 생애 첫 올림픽 무대를 큰 실수 없이 마쳤다. 김하늘 역시 24명이 출전하는 프리 스케이팅 경기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가운데 최연소이자, 여자 싱글 30명 선수 '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OAR) 알리나 자기토바 다음으로 어린 김하늘은 이날 첫 2개의 점프에서 회전수 부족 판정을 받았으나 흔들리지 않고 나머지 과제를 마쳤다

이날 여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는 알리나 자기토바가 여자 싱글 세계랭킹 1위인 예브게니야 메드베데바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 여자 싱글 최연소 출전자인 15세의 자기토바는 이날 완벽한 연기로 82.92점을 받았다. 직전에 메드베데바가 경신한 세계기록을 다시 한 번 경신한 세계신기록이다. 먼저 연기한 메드베데바는 자신의 최고기록이자 세계기록을 경신한 81.61점을 받았으나 곧바로 동생에게 1위 자리와 세계신기록의 영광을 넘겨줘야 했다.

여자 싱글 최종 순위는 23일 열리는 프리 스케이팅 경기 이후 결정된다. /연합뉴스



클로이 김 스타성 있네 美 야후 스포츠 주목

대형 스포츠 스타가 즐비한 미국에서도 클로이 김(18)의 '스타성'에 주목한다.

미국 야후 스포츠는 21일(한국시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으로 클로이 김은 '누구나 아는 이름(household name)'이 됐다"며 "대형 스타가 될 자질이 충분했던 클로이 김은 이제 마케터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타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클로이 김은 지난 13일 끝난 평창올림픽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우승했다. 올림픽 실상 종목 최연소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영예도 누렸다.

한국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미국인이 한국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우승하며 높은 관심을 받았다.

올림픽 스타는 짧은 인기를 누리고, 팬들의 시야에서 사라지곤 한다. 미국에서도 아마추어 종목 선수의 인기가 프로종목 선수들을 넘기 어렵다.

기업도 프로 선수들 후원에 더 열을 올린다. 자주 경기를 펼치는 프로종목 선수들이 '대중 노출도'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후 스포츠는 클로이 김의 다른 면에 주목했다.

바로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이다. 클로이 김은 12일 올림픽 예선 중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다'고 트위터에 올렸고, 13일 결선 3차 시기 전에는 "배가 고파서 짜증이 날 정도"라고 썼다.

클로이 김의 경기력에 환호한 팬들은, 그의 소탈한 트윗에도 열광했다.

야후스포츠는 "10만명도 되지 않던 팔로워 수가 지금은 32만8000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대중은 클로이 김의 한 마디 한 마디에 노출된다.

대형 스포츠마케팅 회사 외서먼 미디어 그룹의 다이아 라비엘리 이사는 "클로이 김은 스포츠 영웅이면서도 평범한 10대의 명랑한 매력을 가졌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력을 SNS로 발산하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지 않는다"며 "클로이 김은 장래까지 봐다. 마케터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스포츠 스타"라고 말했다.

미국 유명 스포츠잡지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는 최신포지 모델로 클로이 김을 택했다. 야후스포츠는 이를 '클로이 김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로 꼽았다. /연합뉴스

"메달권 밖?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봅슬레이 4인승 내일 출격

한국 봅슬레이 4인승 대표팀이 "결과를 아무도 모른다"며 의욕을 보였다.

아쉬움을 안고 2인승 경기(6위)를 마친 원윤종(33·강원도청), 서영우(27·경기BS 경기연맹)와 김동현(31)-전정린(29·이상 강원도청) 네 명으로 구성된 한국 봅슬레이 4인승 팀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1·2차 공식 연습주행을 순조롭게 마쳤다.

21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연습 1차 주행에서 29개 출전팀 중 14위(49초78)로 몸을 뚫 내 명은 2차 주행에서 4위(49초53)로 레이스를 마쳤다.

두 차례 연습주행이 끝난 뒤 만난 네 명은 밝게 웃었다.

파일럿 원윤종은 "2인승 경기 결과는 있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4인승을 준비한다"며 "마음을 다잡고, 최선을 다해 24·25일 본 경기를 준비하겠다. 4인승 마지막 4차 주행까지 잘 마치고 싶다"고 했다.

서영우도 "2인승 결과가 아쉬웠지만, 깨끗하게 결과에 승복했다"며 "4인승 경기도 열심히 준비했다. 우리 팀의 분위기가 정말 좋다. 좋은 결실을 보겠다"고 했다.

그는 "메달 획득이 목표지만, 일단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4인승은 우리의 이번 올림픽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니까"라고 덧붙였다.

봅슬레이 4인승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았다. 2인승은 '메달권'으로 분류했지만, 4인승의 메달을 기대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4인승 대표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개인 세 번째 올림픽을 치르는 김동현은 "앞선 두 차례 올림픽보다 더 간절하다.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다. 우리 네 명이 하나 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출사표를 올렸다.

그는 "우리 4인승 팀이 정말 훈련 많이 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전정린도 "오늘 연습주행에서 1차보다 2차 기록이 좋았다. 3차, 4차 기록은 더 좋을 것"이라며 "4인승보다 2인승에 대한 기대가 더 컸던 것도 안다. 하지만 우리 4인승 팀도 간절하게 준비했다. 응원해주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1일 강원도 평창 슬라이딩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올림픽 봅슬레이 오픈 4인승 연습 주행. 원윤종, 서영우, 김동현, 전정린이 봅슬레이를 출발시킨 후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7-2018
신양파크호텔

겨울이야기

객실패키지 | 2017.12.1 ~ 2018. 2. 28

- 스탠다드룸 ₩ 80,000
- 디럭스룸 ₩ 90,000

- 조식별도 1인 15,000 / 세금포함 -

연회장 할인축제 | 2018. 1. 1 ~ 3. 31

웨딩, 각종 가족모임 및 기업체 세미나 등 출장파티를 포함한 당 호텔 연회 행사시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혜택 : 식료 10%, 음주류 30% 할인

신양파크호텔 예약 및 문의 객실 ☎ 062) 228-8000 연회 ☎ 062) 228-4711~2